

보도시점 2024. 10. 16.(수) 14:00 배포 2024. 10. 16.(수) 11:00

탄소포집저장(CCS) 지평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 개최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24년 10월 16일(수) 서울 페어몬트엠배서더호텔에서 ‘국제 국경 이동 탄소 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 산업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
-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틀을 포함한 국내외 제반 환경을 검토하고, 주요국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에너지기구(IEA/녹화영상)가 기조 연설을 통해 국경 이동 CCS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국제법 진전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장 분석 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및 기업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민간 부문에서 바라보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S가 중요한 감축 수단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해저·지중에 소규모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성공했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 CCS 국경 이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또한, 탄독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CCS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CCS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정 대사는 고배출 산업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 또는 지질학적으로 탄소 저장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국경 이동 CCS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등 제반 환경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 기후·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국경 이동 CCS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민관 이해 관계자들 간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붙임 1.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 개요
2. 컨퍼런스 현장 모습

담당 <총괄>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팀장	김경혜	(02-2100-7859)
		담당자	연구원	황소은	(02-2100-8183)
<공동>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소통협력관	책임자	국제협력 담당관	강유식	(044-200-1969)
		담당자	사무관	윤재희	(044-200-1970)





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 (CCS)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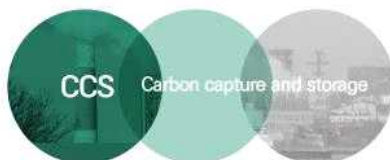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boundary CCS

일시

2024. 10. 16(수)

장소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시간	프로그램
08:30 ~ 09:00	참석자 등록
09:00 ~ 09:10	개회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환영사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09:10 ~ 10:00	[기조연설] 런던협약 의정서와 해양 탄소포집저장(CCS) ☐ 국제해사기구(IMO) 박주현 해양환경과 선임전문담당관 CO₂ 국경 이동·저장의 기회와 도전과제 ☐ 국제에너지기구(IEA) Carl Greenfield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분석관
세션 1	CO₂ 국경 이동·저장의 현황과 전망 :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장연식 스몰창/원연의정서 과학그룹 부의장 한국의 CCS와 CO₂ 국경 이동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준성 자원산업실장 아태 지역의 탈탄소화에 있어 호주의 역할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Kara Peach 국경이동탄소포집저장(CCS) 과장 일본의 해외 CCS 사업 현황 및 각국과의 협력 ☐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 Satoru Takahashi 사업전략국 부국장 ASEAN 내 국경 이동 CO₂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한 현황 및 도전과제 ☐ 아세안에너지센터 Aldila Noor Rakhiemah 전력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저장부 선임연구원 ✓ 질의응답
12:40 ~ 13:40	점심
세션 2	CO₂ 국경 이동·저장에 있어 이슈와 과제 [좌장] 김창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hell의 국경 이동 CCS 경험 : 국경간 기회와 도전과제 탐색 ☐ Shell社 Zharin Zhafrail Mohd CCS APAC 총괄 CO₂ 해상 운송 : 이슈 및 프로젝트 ☐ Wood Mackenzie社 Mark Jelinek 업스트림탄소관리과장 국경 이동 CCS : CO₂ 품질 중요성 ☐ Halliburton社 Kian Wei Tan 저탄소솔루션 선임자문관 LNG 수출에서 CO₂ 수입으로 : 아태 지역 에너지 전환의 순환 구조 ☐ CO₂CRC연구소 Simone de Morton 기술규제자문관 ✓ 질의응답
16:20 ~ 16:30	폐회

주최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탄녹위 김상협 공동위원장 개회사 |



|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환영사 |



| 컨퍼런스 단체 사진 |